

‘밀집수비 돌파’ 그것이 문제로다

아시안컵 내일 새벽 1시 조별리그 2차전

아시안컵 키르기스스탄 예상 선발

12일 오전 1시 아랍에미리트(UAE)
알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



벤투감독 빌드업 작전 주력
동료 연계 통한 수비벽 벗겨내기
세트피스 완성도 높이기도 해법
상대 역습저지·경고 관리 과제

“직접 프리킥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이 좋았는데 첫 경기라 힘이 들어간 거 같네요.”(정우영), “세트 피스 상황에서 득점에 신경을 쓰겠습니다.”(김민재)

벤투호가 7일 필리핀과 펼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은 1-0 승리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이미 예상했던 필리핀의 밀집수비를 뚫지 못해 고전했고, 세트피스의 위력은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에 이용, 김진수(이상 전북), 정우영(알사드)이 옐로카드를 잇달아 받으며 ‘경고 관리’도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시간으로 12일 오전 1시 키르기스스탄과 조별리그 2차전에 나서는 벤투호는 필리핀전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다.

1차전에서 중국에 2-1로 패한 키르기스스탄은 ‘난적’ 한국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하는 게 당면 과제다. 키르기스스탄은 한국과 비기기만 해도 ‘약체’ 필리핀을 최종전에서 꺾으면 조 3위에 주어지는 16강 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키르기스스탄은 ‘선수비 후회습’ 전술을 가동할 게 분명하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



훈련은 즐겁게~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 황의조와 주세종이 9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SSAD 알 맘자르 훈련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서도 한국을 만나 5-4-1 전술로 수비벽을 높이 쌓았다. 최전방 공격수를 뺀 나머지 선수들이 페널티 지역 부근에서 ‘2열 수비벽’을 치고 한국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당시 ‘김학범호’ 역시 공간 창출에 애를 먹으면서 코너킥 상황에서 터진 와일드카드 손흥민(토트넘)의 발리슛 결승포로 1-0 신승을 따냈다.

벤투호 역시 필리핀전에서 밀집수비 공략에 애를 먹었다.

밀집수비 뚫기 해법은 측면 크로스에 의한 공중전과 공격진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로 수비진을 무너뜨리는 지상전으로 나뉜다. 후자를 선택한 벤투호는 이창용(보훤)→황희찬(함부르크)→황의조(감바 오사카)로 이어지는 3번의 패스로 골을 넣었다.

벤투호는 키르기스스탄전도 골키퍼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을 통해 차근차근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방법을 쓸 작정이다. 더불어 위험지역 부근에서 따내는 세트피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밀집수비

뚫기의 또 다른 해법이다.

키르기스스탄전에 ‘전문키커’ 기성용(뉴캐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리킥이 좋은 선수들의 한방이 터져 나와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코너킥 상황에서 떠진 손흥민의 결승골 장면이 벤투호가 이번 2차전에서 재현해야 할 정답이다. 여기에 일방적인 공격을 펼치다 패스가 끊겼을

때 빠르게 전개될 키르기스스탄의 역습을 경고 없이 막아내는 것도 벤투호의 과제다. 자칫 이용, 김진수, 정우영 가운데 한 명이 옐로카드를 추가하면 경고누적으로 중국전에 못 나간다.

기성용과 이재성(임지발가락 부상)이 다쳤고, 14일 합류하는 손흥민도 중국전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고누적 선수까지 나오면 벤투 감독은 중국전 선수 운용에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욕심 내면 따라오는 건 부상 뿐 실패 통해 올 시즌 해답 찾았어요”

KIA 신인 투수 유승철

KIA 타이거즈의 ‘샷별’ 유승철이 길게 보고 멀리 간다.

유승철은 2018시즌 KIA 마운드의 새 전력으로 떠오른 신예 선수다.

순천 호천고를 졸업하고 지난 2017년 우선 지명 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그는 첫해를 부상으로 아쉽게 보냈지만, 프로 두 번째 해였던 지난해 1군 무대 데뷔에 성공했다.

목직한 작구를 앞세운 유승철은 2018시즌 39경기에 나와 47.1이닝을 소화하면서 1승 1세이브 3홀드를 기록했다.

신인답지 않은 배정투로 불펜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야구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마무리는 아쉬웠다.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꿈에 그리던 ‘가을 잔치’는 경험하지 못했다.

유승철은 “2군 내려가서 스피드는 나오는데 제구가 안 됐다. 다시 만들어보겠다고 스스로 혹사를 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가고 싶어서 욕심을 냈는데 팔이 안 좋아졌다”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 시즌을 보내기 위한 ‘긴 호흡’을 배운 게 유승철에게는 큰 소득이다.

그는 “시즌 초반에 좋았던 폼을 유지할 줄 알아야 했는데 더 좋아지고 싶어서 내가 뭘 해보려고 자주 욕심을 냈다. 그러다 보니 경기마다 투구폼이 달랐다”며 “어리석었던 것 같다. 생각을 조금만 바꿨더라면 결과가 많이 달랐을 것 같다. 시합 전에도 불안하면 내가 캐치볼을 많이 했다. 한 경기를 뭏던 것을 가지고 너무 신경 썼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못 던진 것도 아닌데 내가 스스로 못 던졌다고 생각을 했다. 작은 것에 예민하고 반응이 컸다. 144경기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배웠다. 후반기에 가면서 유승철의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자신감이 없었다”고 돌아봤다.

오키나와 마무리캠프가 아닌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2018시즌을 정리했던 유승철은 새해 부지런히 챔피언스필드를 오가며 2019시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유승철은 “지난해 이맘때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하면 놀랍기도 한다. 지난해에는 1군도 한 번도 안 올라간, 재활에 있다가 운동을 하던 선수였다. 개막전 엔트리에 들고, 1군에서든 데뷔하고 좋은 시즌을 보냈다”며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운동을 했다. PT도 하고 있고 몸이 잘 만들어져서 지금 당장 경기를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지난 가을 김정수 재활군 코치와 손목을 고장하고 팔 전체와 어깨를 활용해 공을 던지는 데 주력했던 것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승철은 “손목을 딱바로 고장해서 공을 채고 있다. 팔꿈치로만 공을 던지는 스타일이었는데 팔을 올려놓고 어깨와 팔이 멀어지게 해서 던지면서 답을 찾았다. 아프지 않고 작구 힘이 좋아졌다”며 “지난해 서재용 코치님에게 포크볼도 배웠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온다. 시즌 때 던졌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실패를 통해 2019시즌의 답을 찾은 유승철은 “70이닝, 풀타임을 목표로 해서 아프지 않고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 시즌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으로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유승철이 10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광주 FC 수비 강화

미드필더 박정수·수비수 이시영 영입

프로축구 광주FC가 베테랑 미드필더 박정수를 영입했다.



광주는 10일 지난 시즌 강원 FC에서 활약한 수비형 미드필더 박정수(31)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해 중원을 강화했다.

11년 차 베테랑인 박정수는 하위리그부터 최상위 리그까지 모두 경험한 투지와 헌신의 아이콘이다. 박정수는 2009년 내셔널리그 대전 한수원에서 데뷔해 해외(일본·중국·태국)에서 활약했다. 이후 고양 자이크로에 입단, 15경기 2골을 기록했고 K3리그 포천시민축구단에서 군복무를 하며 MVP에 선정되기도 했다. 182cm·73kg의 다부진 몸으로 왕성한 활동량과 몸을 사리지 않는 대인 플레이를 선보였던 박정수는 지난 시즌 K리그1 강원엔 합류해 25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박정수는 “팀 승격에, 또 동료 선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주는 앞서 측면 수비수 이시영(21)도 성남 FC로부터 임대 영입했다.

성남 유스 출신인 이시영(173cm·65kg)은 지난 2017년 덴소컵(우수선수상), 하계 U대회 대표선발, U리그 왕중왕전(전주대 준우승) 등 대학 무대에서 맹활약한 뒤 프로에 데뷔했다. 프로 첫해인 지난 해 팀 내 이학민과 경쟁하며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했지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